문화광장

예술의 다양성을 향한 변화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어렸을 적 TV에서 방영되던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영화를 슬프게 봤던 기억이 있다. 마지막에 화가를 꿈꿨던 네로와 그를 따랐던 개 파트라슈가 죽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프다. 물론 이제는 대강의 줄거리만 생각날 뿐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만화영화를 종종 떠올리는 이유는 네로가 닮고자 했던 화가가 실존했던 루벤스였기 때문이다. 네로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보러 간 작품이 바로 루벤스의 그림이다. 네로는 그토록 보길 원했던 그러나 금화 한 닢이 없어 보지 못했던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짐'을 보며 숨을 거뒀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 루벤스 작품을 설명할 일이 생기면, 한 5년 전까지도 이해와 재미를 위해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를 곁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망설여진다. 네로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다.

네로가 루벤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성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면을 요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까? 지금은 스마트 폰으로 '루벤스'를 검색을 하면 그의 수많은 작품 이미지가 화면에 뜨고, 육안으로는 불가능한 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고해상도의 사진을 미술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작품이 보고 싶으면 스마트 폰을 꺼내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작품 사진뿐 아니라 큐레이터가 직접 나와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영상까지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휴관을 하거나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자 미술관이 대안으로 전시, 작품, 작가 등을 유튜브 등에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작품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요즘 관람객은 네로처럼 명화를 보며 감동받기도 하지만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기쁨 또한 크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멋진 작품이 인기가 높다. 작품 앞에 사진을 찍기 위한 관람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미술관에 작품을 감상하기보다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작품을 감상한다기보다 즐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미술관에서 카메라를 들면 갑자기 촬영은 안 된다며 누군가 나타나는 일은 옛 일이 됐다.

제주도 문화예술 큰 변화를 지난 10년간 겪어왔다. 그리고 변화로 인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변화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거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사람들이 변화에 익숙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의 새로움도 언젠가는 옛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다양성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즉 옛 것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작품을 볼 수 있어도, 전시장에서의 원작을 보는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만큼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주어, 해녀문화, 제주신화 등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박제화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의 것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사설

미숙과 유통은 제주감귤 망치는 길이다

감귤 수확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불량감귤을 몰래 팔려는 얄팍한 상술이 고질병처럼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이 처음 적발됐기 때문이다.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시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노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시는 극조생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3t을 지난 9일 봉개동 한 과수원에서 적발했다. 단속반이 이날 확인한 당도는 7~7.5브릭스 정도다. 미숙과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된다. 시는 추석 전후로 덜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1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와함께 극조생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이달 2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얼마전 올해산 노지감귤의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관측조사 결과가 나와 기대되는 참이었다.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미숙감귤 수확 현장이 적발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20~40건에 적발 물량도 10여t에서 많게는 100t에 이른다. 때문에 행정의 힘만으론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옛 속담에도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은가. 따라서 불량감귤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전방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얼어붙은 전통시장 명절대목, 함께 풀자

전통시장 명절대목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로 꽁꽁 얼어붙은 '동토'를 연상케 한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도 오일장이나 재래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발길에도 불구하고 대목장과는 거리가 멀고, 사뭇 위축된 모습이다. 지역사회가 어려울수록 이왕이면 전통시장 소비로 도민 모두 훈훈한 명절을 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들까지 자연스레 나오는 형국이다.

추석을 목전에 둔 지난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최근 썰렁한 경기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했다. 대부분 상인들은 이어지는 방문객들 행렬에도 기대 매출을 올리기엔 역부족이란 반응들이었다.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소비회복을 기대했지만 오랜 소비심리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모임이 어려워져 차례상 차리기 간소화에다 택배물량 감소, 중·소형 마트 중심의 소비활동 등의 영향에 전통시장의 명절대목이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도 전역 전통시장서의 장보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확실한 '카드'로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수 천명에 이르는 전통시장 상인수에다 그들 모두 우리 '이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거기다 명절 제수용품중 과일류나 생선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한창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라는 점도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권장할 요소다. 전통시장측도 명절대목만을 내세우기 앞서 더 많은 가격 할인과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느냐 여부가 상인·시장측 노력여하에 달렸음을 잊어선 안된다. 행정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 더 보여야 한다. 전 공직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는 여전히 유효한 방안중 하나다.

전통시장이 명절특수 아닌 옛 활기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인근시장 장보기에 동참하길 재삼 권한다.

열린마당

추석 연휴 '원도심 심쿵투어' 떠나보세요

김 형 준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기간 동안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원도심을 걸으면서 추억도 쌓고 완주하면 경품도 제공하는 원도심 심쿵투어를 준비했다. 심쿵투어의 뜻은 '원도심을 걸으면서 도장을 쿵하고 찍는다'는 의미이다. 원도심 심쿵투어는 2019년부터 원도심의 문화·관광자원,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활용해 경관 중심 일회성 관광에서 체류형 도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연계해 기상과학홍보관을 필수 방문 장소로 추가했다. 참여 방법은 먼저 투어를 시작하기 전 '제이스탬프 앱'를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투어 장소에서 QR코드를 찍어 장소인증을 하면 된다.

투어는 총 3개 코스로 구성돼 있고, 필수 장소 2개를 포함 5개의 스탬프를 받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완주경품이 제공되며, 경품으로는 1개 코스 완주 시 원도심 관광지 이미지를 담은 스티커 세트, 2개 코스 완주시 심쿵투어 마스크 스트랩, 3개 코스 완주 시 탐나는 전 5000원권이 지급된다. 경품 교부는 김만덕기념관, 탑동관광안내소, 용두암관광안내소, 제주시 버스터미널안내소 등 4개소에서 지급한다.

투어 코스에는 젊은 20~30대가 선호하는 카페, 맛집이 포함돼 가족, 연인들이 연휴 기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투어 기간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원도심 심쿵투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들이 삶의 활력과 여유를 되찾길 바라며, 투어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 방문 또 연기

태풍 '찬투'에 일정 순연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태풍에 발목을 잡혀 또다시 제주 방문 일정을 연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13일 "17일 제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일정을 순연하겠다"며 "재난 방제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제주에서 정치 일정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후보의 뜻이었다"고 공지.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월 제주를 찾아 4·3유족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계획을 취소. 이상민기자

가격 급등 계란 수급상황 점검

○…최근 계란 소비 가격이 1판(30알) 기준 지난해 대비 31.9%가 상승한 7477원에 유통되면서 제주시가 13일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식용란 선별포상업체를 방문 수급상황 등을 점검.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상승이 지속돼 식용란 수급 상황 점검 등을 위해 마련.

이날 안동우 시장은 "추석 물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 확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이윤형기자

태풍 대비 등하교 대책 세워야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며 이번 주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설 및 등하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이 교육감은 13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태풍 '찬투'가) 제주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으로 보여 학교 시설 누수 및 범람 요인 등을 파악해 안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

이어 학생 등하교 안전 대책도 미리 세워 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것도 주문. 오은지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만감류 매달기! 다인 귤고리
귤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귤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귤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귤고리 사용 방법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귤,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小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大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귤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홍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